

중증 골절 85세 할머니, 연변병원서 응급수술 성공



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30일, 그는 부주의로 넘어져 왼쪽 대퇴골 응급 골절과 왼쪽 골반 연조직 좌상을 입었으나 병원을 찾아 구체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11월 17일에 간능양, 2형 당뇨병, 당뇨병 케톤산증으로 연변병원 중증환자실(ICU)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는 관절외과(골과 1)에 입원했는데 주로 왼쪽 상완골 근위부 분쇄성 골절과 왼쪽 대퇴골 응급 분쇄성 골절로 진단받았다.

환자의 다부위 골절과 출혈량이 많고 병세가 위중한 점을 고려하여 김경일 부주임의사는 리씨 할머니의 가족과 충분히 소통한 후 골과진료중심 류인군 주임에게 상세히 보고했으며 비준을 거쳐 김경일 부주임의사, 장보건 부주임의사, 박명준 주치의사 및 리성현, 반진해, 관익원 등 입원부의 의사들로 임시치료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진료계획 작성을 목표로 긴급히 수술 전 병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수술 지연

이 환자의 전신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치료팀은 다시 상세히 병력을 문의하고 전문 검진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수술방안을 확정하고 응급처치 예비안을 제정했다.

이러 치료팀은 수술실과 마취과에 회진 요청을 제출했다. 충분한 소통을 거쳐 병원은 '환자 중심'의 원칙하에 리씨 할머니에게 녹색 진료 통로를 개설하여 치료 과정이 효율적이고 원활하도록 확보했다. 병원 여러 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전면적인 지원에 힘입어 필요한 검사와 화학검사 등 일련의 입원 준비를 신속하게 완수했다. 수술과는 연변중심혈액소와 적극 조율하여 '회귀혈액' 난제를 해결해 수술의 원활한 진행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다.

1월 20일 19시, 수술전 준비를 마친 후 생사를 가르는 응급수술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고 다부위 골절인 데다가 '회귀혈액'이다 보니 시간이 곧 생명이었다. 수술시간의 연장은 수술중의 출혈량 증가를 의미한다. 신중한 고려 끝에 치료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시술을 마쳤으며 골절 위치 회복이나 고정 효과가 매우 이상적이었다. 그중 왼쪽 골반 수술은 단 10분, 왼쪽 어깨 수술은 단 25분이 소요되었으며 총출혈량은 80cc를 넘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는 안전하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으며 왼쪽 골반과 어깨 수술 부위의 통증이 현저히 완화되고 왼쪽 골반 관절과 어깨관절의 수동 굴곡 및 확장 활동 모두 양호했다.

리씨 할머니의 가족은 "수술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기대도 못했어. 연변병원 의료진 덕분에 '생애 마지막 골절'이 될 변함을 면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성은 연속 13년 종의관 건설 전문 자금을 설립했으며 루계로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1,786개의 종의관을 구축했다. 이 밖에 섬서성은 또 7년 연속 자금을 투입하여 종의관을 위해 핵심인재 1,400여명을 양성하고 연 3만 5,200명의 기증 위생기술팀원들을 위한 종의약 지식과 기증

/ 리진기자 / 사진 연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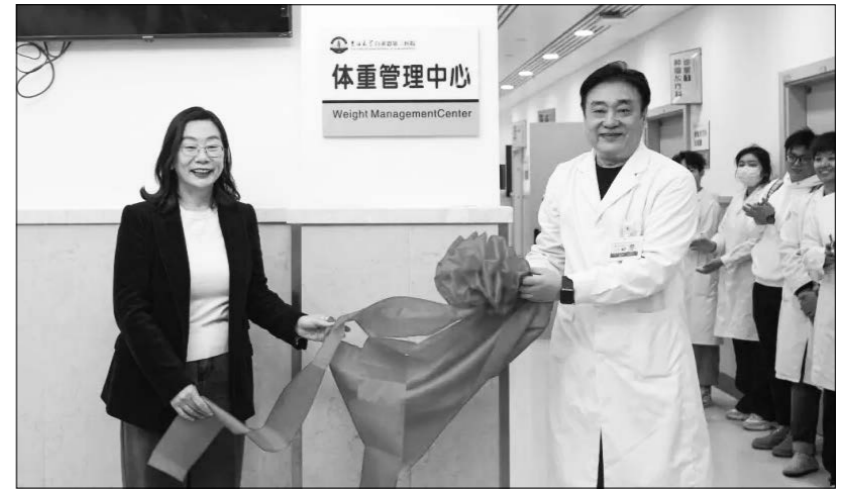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생봉사들

1. 전국의 2급, 3급 공립종합병원 소아과 봉사를 제공한다.
2. 매 지구급 도시의 적어도 한개 병원에서 심리, 수면 외래진료 봉사를 제공하고 국가통일심리지원선 12356의 응용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5,000회 이상의 국가와 성, 시급 전문가의 심리건강지식 강좌를 조직한다.
3. 지구급 도시내 의료기구간의 검사 결과 상호 인정 대상이 200가지를 초과한다.
4. 1,000명당 3세 미만 영유아 위탁양육봉사 자리수가 4.5개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보편화해성 위

5. 외래진료비 선납금을 취소하고 의료기구는 의료보험 환자의 입원 선납금 한도액을 동일 질병의 개인 지불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6. 상주인구가 10만명 이상인 현은 혈액투석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7. '혈액비 감면'을 추진해 헌혈자가 타지역에서 혈액비 감면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한다.
8.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차 이상의 '시령 절기와 건강' 건강지식 발표회를 조직한다.

/ 중국정부넷

우리 성 최초 체중관리중심 설립



일전, 길림대학중일연의병원 체중관리중심이 정식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국가 중점 전문의학 자원과 학과 진료의 우세에 의탁한 우리 성의 최초 체중관리중심으로서 이 체중관리중심에서는 정확한 평가체계 및 과학적 간섭과 건강관리를 일체화한 체중 관리의 새로운 모식을 힘써 구축하고 과체중, 비만 및 수척한 사람들에게 더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체중감량대사외과, 림상영양과, 생리학중심, 림상심리과, 재활의학과 및 종의과 등 6개 과실을 핵심적으로 융합하고 다학과(多学科) 전문기법을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검측 설비로 전통적인 체중 측량의 한계를 돌파하고 단순한 체중 감량에서 대사건강의 관리까지 책임지고 실현한다.

길림대학중일연의병원 체중감량대사외과 주임 강도는 "비만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유전적, 심리적 등 여러 면과 관련된다. 우리 중심은 환자들을 비만의 근원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만약 환자

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림상심리과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행동지도도를 제공한다. 림상영양과는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진 환자들에게 과학적인 식습관을 조언한다. 운동방식이 잘못된 재활의학과는 합리적인 운동방안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이외 우리는 중의학 침구, 마사지, 매실(埋線) 등 특색 료법을 활용하고 국가 비준 범위내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약물의 사용을 정확하게 지도한다.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체중감량대사외과는 수술을 통해 환자의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길림대학중일연의병원 영양과 주임 왕설은 "림상영양과는 음식과 영양 지도로부터 시작해 환자를 위해 독특한 식단과 운동간섭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환자가 양호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비약물 간섭 수단을 통해 환자가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실현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많이 발생!

전문가: 사전에 예방해야



2월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관련 전문가는 봄철은 알레르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고 코물을 흘리고 눈의 가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꽃가루 알레르기인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소나무, 백양나무 등 풍매화의 꽃가루라고 밝혔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데 약물 예방과 알레르겐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대응 조치를 미리 잘해야 한다.

북경대학인민병원 주임의사 마연량은 "레를 들어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경우, 미리 부데네이드(布地奈德), 플루티카손(氟替卡松)과 같은 코스프레이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봄철 꽃가루 시즌 시작전 최소 2주에서 4주전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3월 중순에 꽃가루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에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

터 예방 약물을 준비해야 한다. 알레르기결막염이 있는 경우, 에메스린점안액(依美斯汀滴眼液)과 같은 (항)알레르기 점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천식이 있다면 흡입(당피질) 호르몬이 함유된 약물을 사용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계절에는 꽃가루 알레르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기상부문에서 발표한 꽃가루 농도 검측 정보를 주목하면서 꽃가루 농도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외에 알레르기 방지용 실리콘 보호대가 있는 안경을 착용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특히 천식 환자는 반드시 살부타몰(沙丁胺醇)이나 포르모테롤(福莫特罗)과 같은 응급 약물이 포함된 흡입제를 휴대하여 꽃가루 시즌에 심각한 발작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받고 입원수속을 밟아주었다. 상세한 병력 조사에서 리씨 할머니는 15년의 고혈압과 당뇨병, 10년의 뇌경색 병력이 있으며 혈액형은 '회귀혈액'임

골반 골절을 흔히 '생애 마지막 골절'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는 노인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만약 환자가 여러가지 중한 기초질병을 앓고 있고 또 '회귀혈액'의 소유자라면 이 일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최근 연변병원에서는 의료진을 동원하여 두번이나 락상(摔伤)을 당한 '회귀혈액' 소유자 로인을 위해 구체적인 치료방안을 제정하고 긴급 수술을 진행하여 손리롭게 이 로인을 구급했다.

지난해 10월말의 어느 날, 연길시의 85세 리씨 할머니는 부주의로 넘어져 왼쪽 골반(左髋部) 부위에 경미한 골절을 입었다. 당시 리씨 할머니와 가족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1월 19일, 리씨 할머니는 또 한번 걷다가 넘어져 왼쪽 대퇴골 응급 분쇄성 골절과 왼쪽 상완골 근위부 분쇄성 골절을 입었다.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 움직임이 제한을 받아 일어나 서거나 걸을 수 없게 된 리씨 할머니는 이튿날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 골과진료중심(骨科诊疗中心)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관절외과(골과 1) 김경일 부주임의사가 리씨 할머니에 대한 진찰을 접수



기증의료위생기구 종의관 약 4만 2,000개

일전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전국 기증의료위생기구 종의관은 총 4만 2,000개에 달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 종의관은 3,000여개에 달했으며 현재는 사회구역 위생봉사센터, 향(진)위생원에 기본적으로 전면 보급되어 전국의 99.6%의 사회구역 위생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에서 종의약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증 종의약 봉사 보급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종의관의 봉사 질과 기술수준 및 관리능률을 '기본 단계에서 탁월한 단계'로 향상시켰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의학과 의학생 무료 전문양성, 종의관 핵심인재 육성, 기증 유명 종의약전문가전송센터 구축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6개 분야 10가지 이상의 종의약 적합 기술에 대한 양성 및 보급을 실시하여 종의약 적합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구역 위생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의 비율이 98%로 향상

되었다.

섬서성은 2018년에 이미 전 성에 기증의료위생기구 종의관을 전면 보급했다. 섬서성중의약관리국 부국장 공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2년부터 우리 성은 연속 13년 종의관 건설 전문 자금을 설립했으며 루계로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1,786개의 종의관을 구축했다. 이 밖에 섬서성은 또 7년 연속 자금을 투입하여 종의관을 위해 핵심인재 1,400여명을 양성하고 연 3만 5,200명의 기증 위생기술팀원들을 위한 종의약 지식과 기증

강습을 실시하여 기증 종의약 인재대가 끊임없이 장대해졌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의정사 부사장 형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의약 봉사가 대중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기증의 종의 진료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종의관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기증 종의약 봉사의 접근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끊임없이 강화시켰다.

/ 신화사

국내 최초! AI 소아과 의사 본격 도입



2월 13일, 국가아동의학중심과 북경아동병원 회진중심에서는 전문가형 AI 소아과 의사를 정식으로 '도입'하여 13명의 소아과 전문가와 함께 난치성 사례에 대한 다학과 회진을 완료

했다. 북경아동병원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이는 전국 최초의 AI 소아과 의사로 난치성 회귀병 진료를 지원하여 소아과 의료봉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8세 소년이 이번 회진의 대상자였다. 그는 3주 동안 지속적인 경련을 겪었고 2주전에 두개저종양(颅底肿瘤)이 발견되었다. 병인이 복잡하여 여러 지역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진료 결과가 달랐다. 이번 회진에서 AI 소아과 의사는 이번이후, 중앙외과 등 다양한 부서의 13명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일치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도입'한 AI 소아과 의사는 북경아동병원에서 개발중인 아동건강 인공지능 대모형 시리즈 제품중 하나로서 북경아동병원의 300여명의 유명 소아과 전문가의 임상 경험과 전문가들의 수십년간의 고품질 병력 데이터를 모두 통합했다."고 국가아동의학중심 주임이며 북경아동병원 원장인 니훤이 말했다.

이 전문가형 AI 소아과 의사는 림상과학연구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의사를 도와 최신 연구 성과와 권위성 지침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의사들에게 난치성 회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림상 결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니훤은 또 이번 전문가용에 이어 가정용, 사회구역용 AI 소아과 의사가 연속 도입되면 기증의료기관, 가정 등 다양한 장면에 전방위적으로 보급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의료자원의 균형적인 배치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칭화대학 AI 연구원 명예원장인 장발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AI 량의 강화는 소아건강 보장, 소아과 자원 확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신화사